

석사학위청구전

Decomposition: 분해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 전공

최 학 윤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강관식

Decomposition: 분해

Decomposition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 전공

최 학 윤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강관식

Decomposition:분해

Decomposition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 전공

최 학 윤

최학윤의 미술학 석사학위청구전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선태 (인)

심 사 위 원 강 관식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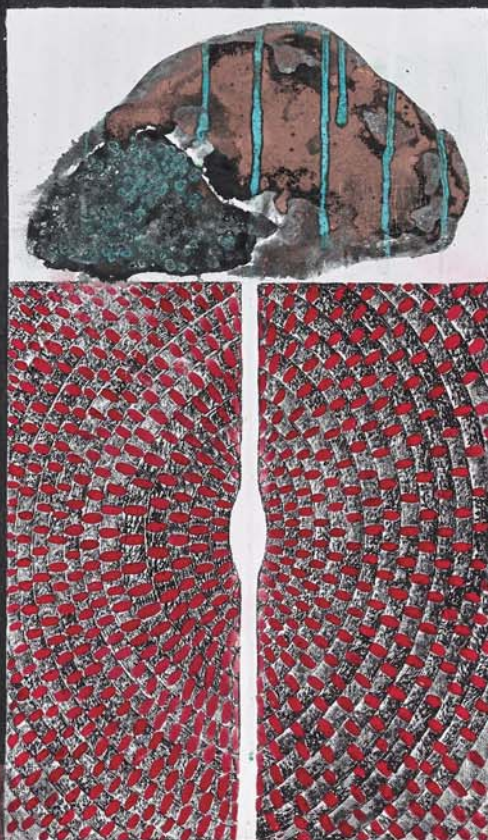
심 사 위 원 김 정현 (인)

석사학위청구전

Decomposition

최학윤

Choi Hak Yoon



Decomposition: 분해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청구전

Hansung university postgraduate exhibition

2021. 12. 06(월) - 12. 12(일)

spacesiot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19 빌라시옷 B1

Villa Siot B1, 119 Philun-dong, Jongno-gu, Seoul

<https://spacesiot.com>

발행인 최 학윤 Publisher Choi Hak Yoon

발행일 2021. 12 Issue date 2021. 12

디자인 조 민건 Design Jo Min Geon

2021 Choi Hakyoon

이 도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복사, 복제 또는 사진 및 기타 정보기기에 의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is catalog cannot be reproduc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holder under any circumstances.

It may not be copied, reproduced or used by photographic and other information de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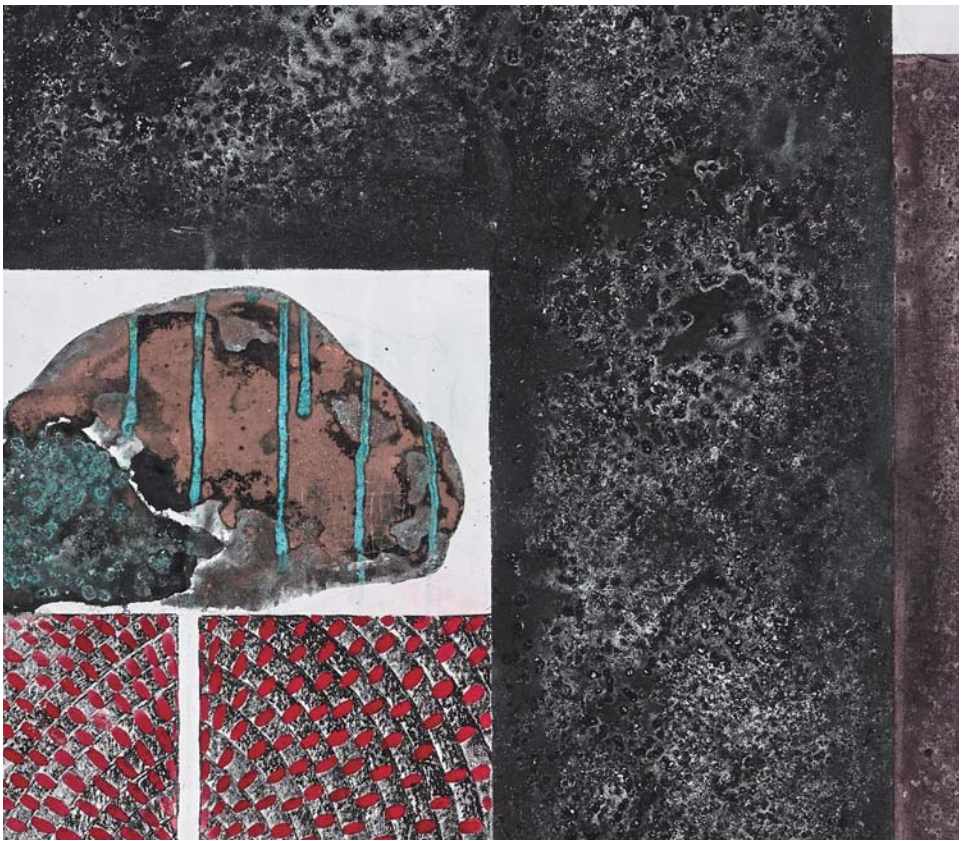


〈Decomposition〉

I started this series to bring out the most honest stories that touched me. In this series, the existence of me that seemed to have been excluded from the work was intended to be revealed through this work. In fact, I may have been unconsciously working on the subject of emotions long before this. When it comes to color selection, I tend to prefer dark colors to bright colors. In particular, as the background that influences the overall feeling of the painting, there were many cases of using colors that emphasize the dark, hazy, and calm sense. I consider myself a very sensitive person. Because of this, it was more comfortable to use emotions as a subject than any other subject. The element of emotions, sometimes hidden and sometimes revealed, became the first topic that touched me. In this exhibition, a series with the theme of emotion will be unveiled. Emotions are a very complex and inclusive subject. In this series, we focus on composing elements obtained by decomposing specific emotions in the screen. Visualized emotions of various shapes are floating in the screen. They connect to each other, engage with each other, and penetrate each other's body. I haven't set any rules for configuring them. I wanted to show that the decomposed emotions are freely floating on the screen. In fact, many of the themes become clear through coincidence rather than through computational analysis. The same goes for the ongoing series. After accidentally watching a documentary about architectural philosophy of Ando Tadao, my whole body reacted to the dizzying tension. This was a feeling that was clearly different from the methods of calculating, researching, and analyzing for work so far. I wanted to show my honest sense as it is, so I decided to adopt the subject. I thought that the element of stillness that I felt was the first emotion that reached me before I was conscious and aware of something. Otherwise, there was no way to explain these sudden shriveling I felt. So I was very excited to start this work. What was interesting was that while thinking about the subject of stillness, the intense tension of the element of something unnatural kept revolving in my head. The feelings of the two opposing elements came to me very clearly. The sharp tension was also thought to be another component included in the subject of stillness. The 〈Decomposition〉 series was made through this analysis. This is the reason why the collage method was adopted for composing the screen. It came to me at first as an element of stillness, but this painting was intended to represent the process of gradually decomposing and intervening in the consciousness through me. The various geometric masses are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specific subject. Each component has its own properties, but at the same time, it indicates that they exist as part of a large mass. They seem to be floating in their own places, but they are in the process of touching and connecting with each other. it's alive. Because of that, when it finally came to me, a complex emotion swayed beyond the feeling of stillness.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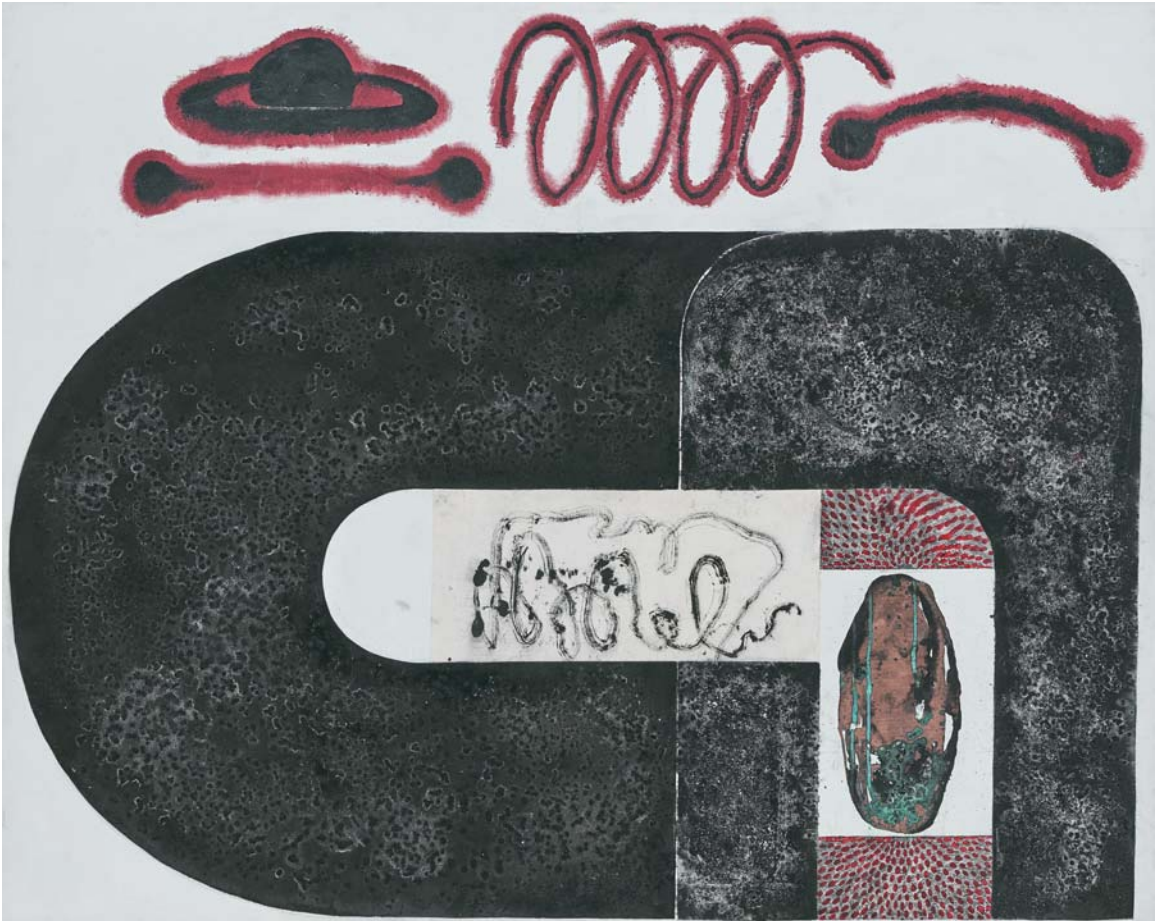
나는 나 자신에게 달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고자 이 시리즈를 시작하였다. 그동안 작업에서 배제되어있는 것만 같았던 나라는 존재를 이 작업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사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감정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무의식적으로 하고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색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나는 밝은 색채보다 어두운 색을 선호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작업의 전체적 느낌을 좌우하는 배경으로 어둡고 몽롱하고 차분한 감각을 강조하는 색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스스로 감정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감정을 주제로 삼는 것이 다른 어느 주제보다 편하였고 솔직한 주제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때론 숨기고 때론 드러내는 감정이라는 요소는 나에게 가장 먼저 달는 주제가 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감정을 주제로 한 시리즈를 공개한다. 감정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복잡하고 포괄적인 주제이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특정 감정을 분해하여 얻어지는 요소들을 화면속에 구성하는데에 집중한다. 화면안에는 여러가지 모양의 시각화되어진 감정들이 부유하듯 떠다니고 있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맞물리기도 하며 서로의 몸통을 관통하기도 한다. 나는 이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규칙을 설정하지 않았다. 분해된 감정들이 자유롭게 화면속을 부유하는 것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다. 사실 많은 주제가 오롯이 계산적인 분석을 통해 드러가니보다 우연을 통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 또한 그러하다. 우연히 안도 다다오의 건축철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접한 후 직선적인 건축에서 나오는 아찔한 긴장감과 고요함에 온몸이 반응한 적이 있다. 이는 지금껏 작업을 위해 계산하고 방법론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식과는 확실히 차별된 느낌이었다. 솔직한 감각 그대로를 드러내고 싶었던 나는 그 주제를 채택해보기로 하였다. 직선적인 건축에서 나오는 고요함이라는 요소는 나 스스로 무언가 의식하고 인식하기 전 가장 일차적으로 나에게 달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느낀 급격한 소스라침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때문에 나는 매우 흥분된 마음으로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고요에 관한 주제를 생각하면서도 무언가 인위적이고 자연적이지 않은 직선이라는 요소가 주는 심한 긴장감이 자주 머릿속을 맴돌았다는 점이다. 얼핏봐서 상반된 두 요소가 주는 각각의 느낌은 나에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가왔다. 날카로운 긴장감 또한 작은 소리조차 허용하지 않은 고요함이라는 주제에 포함된 또 하나의 구성요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해〉 시리즈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화면을 구성함에 있어서 플라주방식을 채택한 이유도 이것이다. 나에게 고요라는 요소로 처음에 다가왔지만 이것이 점차 나라는 의식이 개입되며 분해되는 과정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기하학적인 여러 덩어리들은 주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구성요소들이다. 구성요소들은 각자의 성질이 있지만 하나의 큰 덩어리의 일부분으로써 존재하고 있다는점을 나타내본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유하는 듯보이지만 이들은 서로 맞닿고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살아 움직이고 있다. 때문에 비로소 나에게 다가왔을 때 고요를 너머 복합적인 감정이 요동친 것이다. 캔버스에 구성된 요소들은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하나의 성질로만 보이는 것들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역할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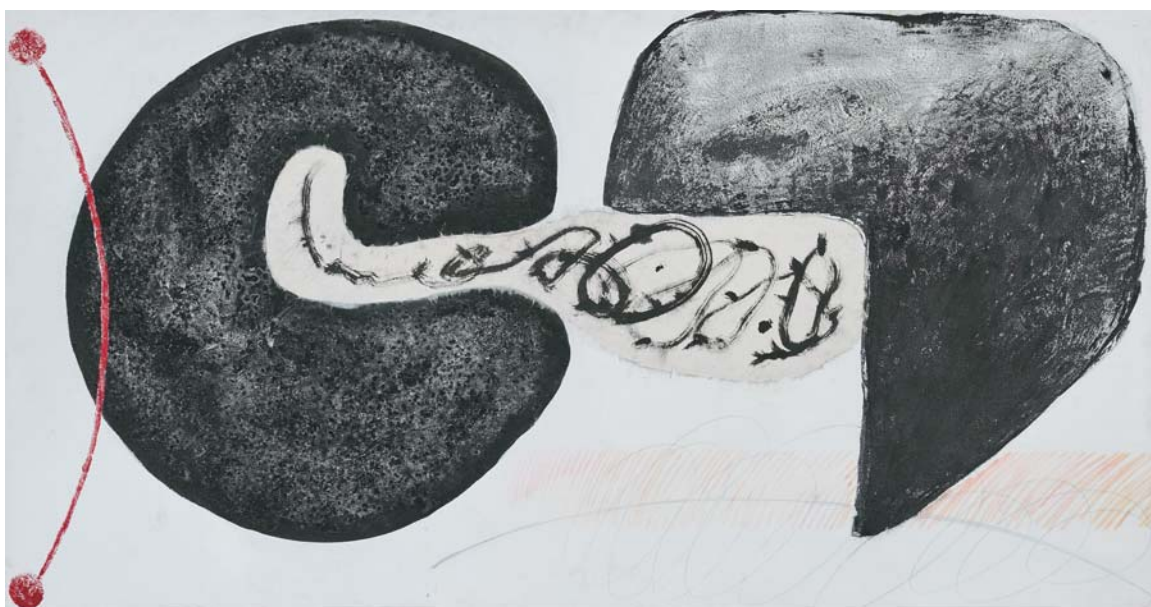
Decomposition 1, 2021, 131x82.5cm Pigment, ink, acrylic on canvas





Decomposition 2, 2021, 106.5x133.5cm Pigment, ink, acrylic, hanji paper, gelstone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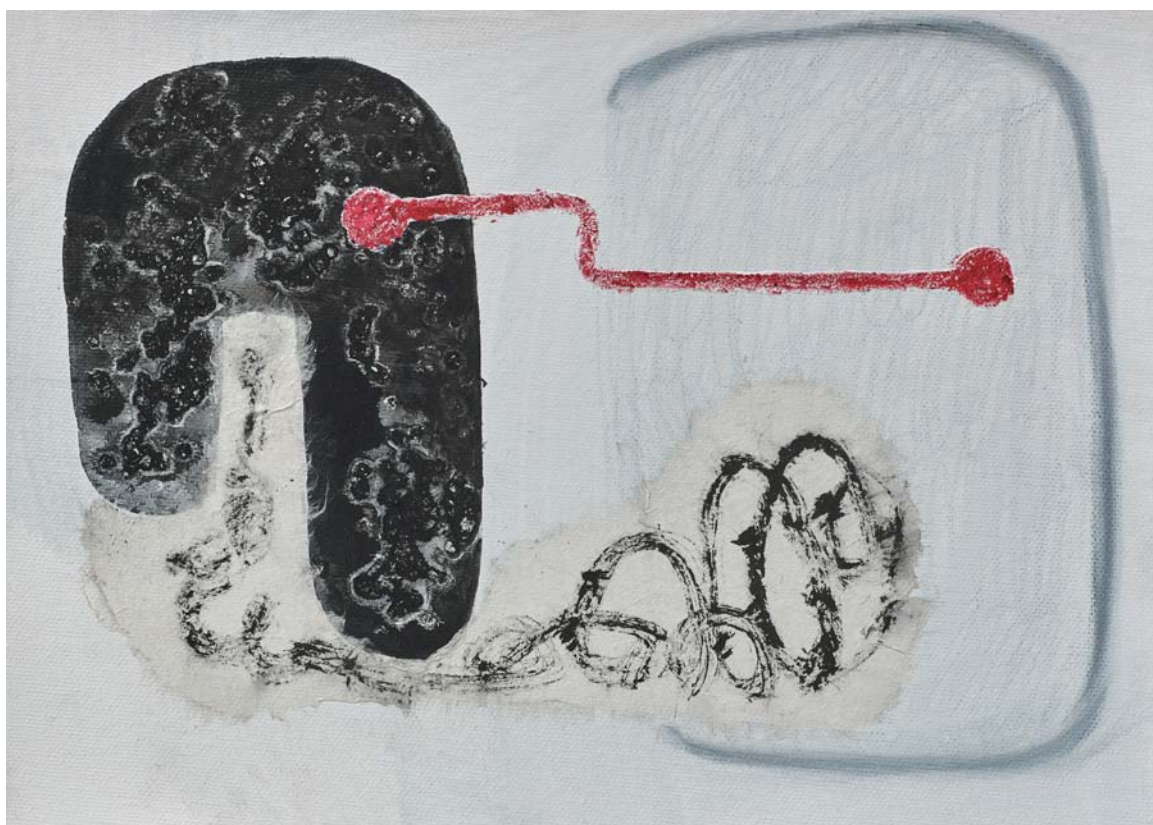




Decomposition 3, 2021, 69.5x133.5cm Pigment, ink, acrylic, hanji paper, gelstone on canvas



Decomposition 4, 2021, 40.5x32cm Pigment, ink, hanji paper, gelstone on canvas



Decomposition 5, 2021, 106.5x133.5cm 33x23.5cm Pigment, ink, hanji paper, gelstone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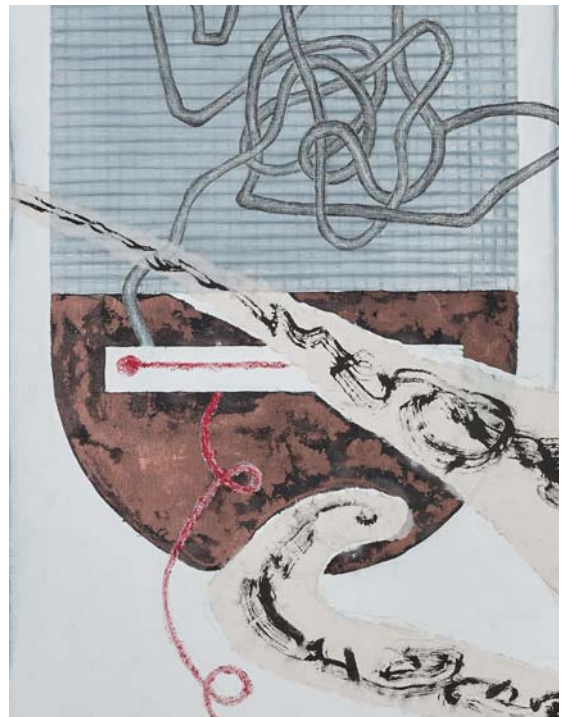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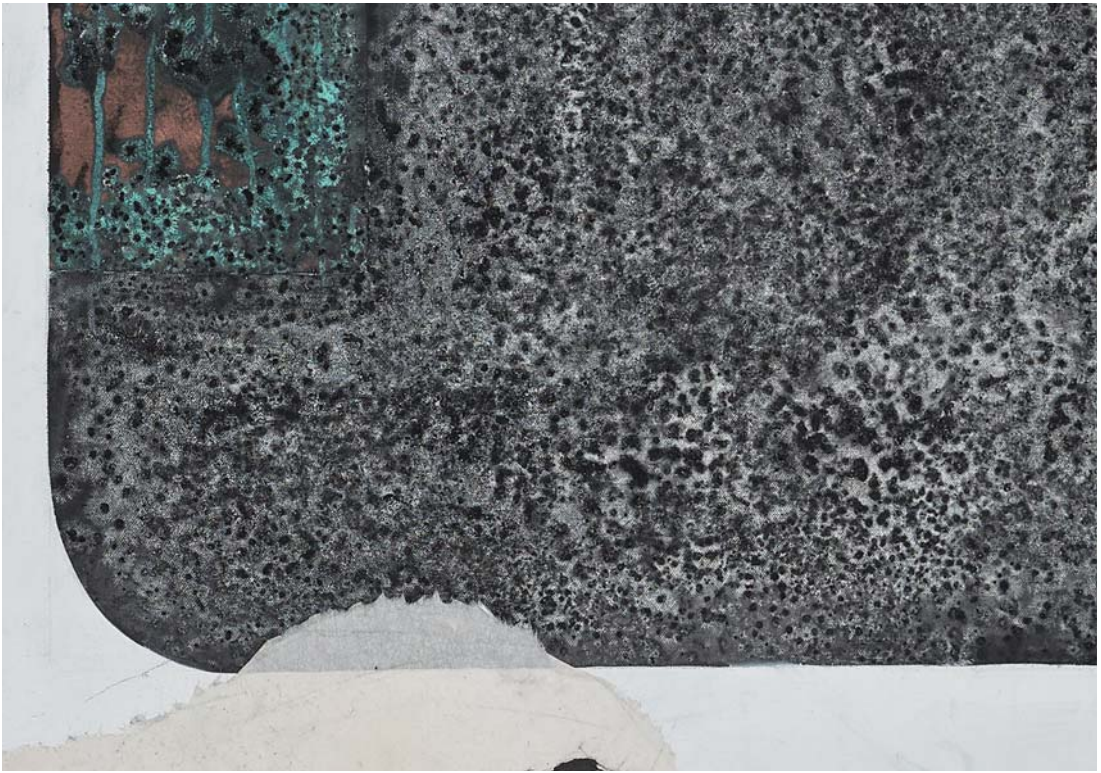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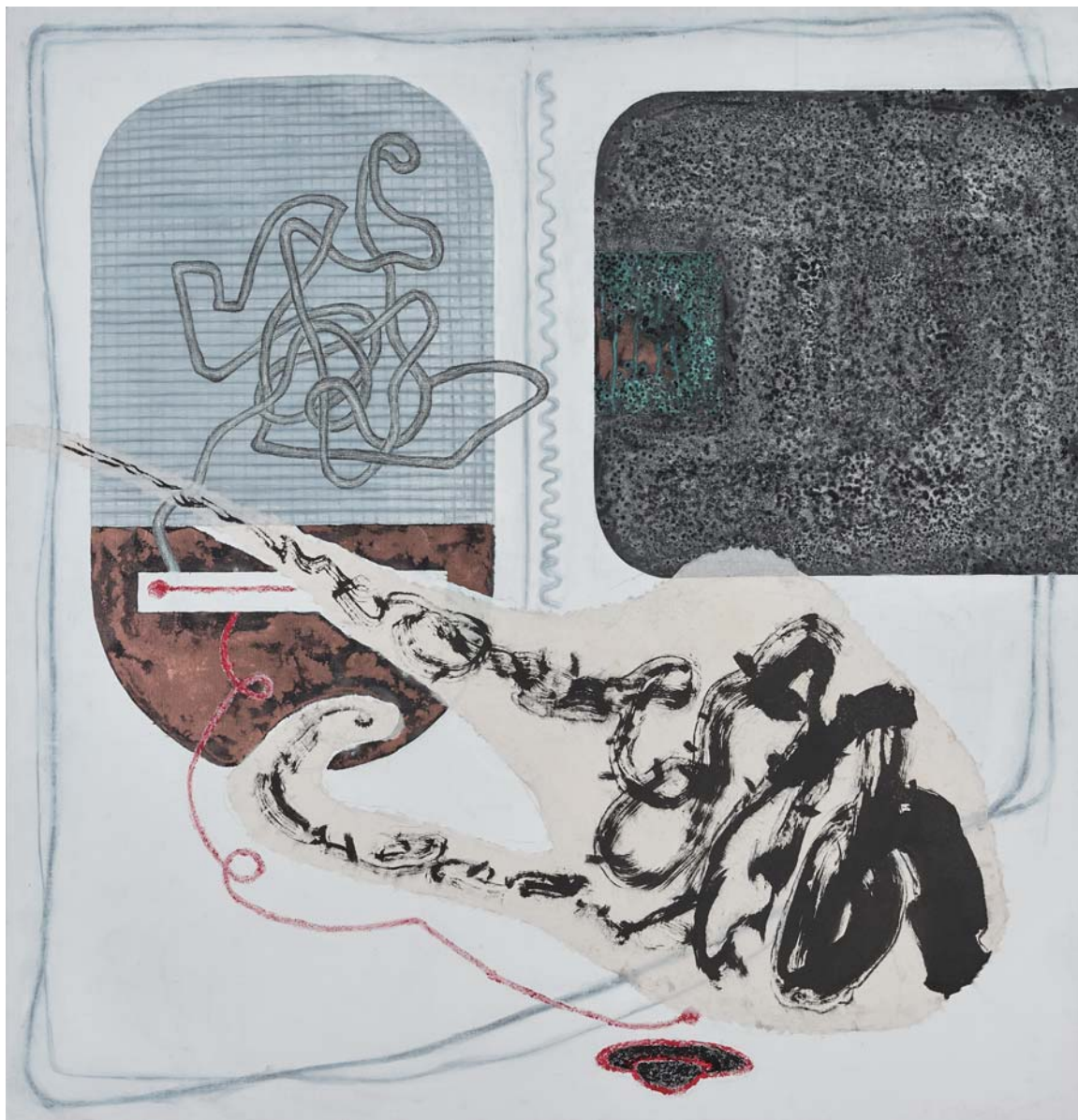
Decomposition 6, 2021, 82x133cm Pigment, ink, hanji paper, gelstone, oil pastel on canvas





Decomposition 7, 2021, 94x136cm Pigment, ink, hanji paper, gelstone on canvas





Decomposition 8, 139x133cm Pigment, ink, hanji paper, gelstone on canvas



Decomposition 9, 2021, 120x80cm Pigment on canvas



Decomposition 10, 2021, 24x34.5cm Pigment on canvas

Profile

최 학윤 Choi Hak Yoon(b.1994)

Mail chynick@naver.com

Instagram h9lab

Phone 010 7745 5375

학력 Education

2022 한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Postgraduate Degree, Hansung university, painting, True Colored Painting | Korea

2020 한성대학교 졸업 Undergraduate Degree, Hansung university, Dep of painting, Major in Eastern Art | Korea

개인전 & 그룹전 Solo & Group Exhibition

2021 롯데갤러리 RE : 재구성된 생각들 단체전 2021 Lotte Gallery <RE: Reconstructed Thoughts> Group Exhibition

2020 토포하우스 <바라봄을 너머> 개인전 2020 Topo House <Beyond Sight> Solo Exhibition

2019 토포하우스 <0.00> 개인전 2019 TopoHouse <0.00> Solo Exhibition

2016 경남문화예술회관 단체전 2016 Gyeongnam Culture and Arts Center Group Exhibition

2015 씬지길 계단갤러리 <산수> 개인전 2015 Ssamzie Street Stairs Gallery <Landscape> Solo Exhibition

2015 디큐브시티 아트고리 단체전 2015 Dcube City ArtGori Group Exhibition

2015 '전하다' 프로젝트 선정작가, 상수역 커먼커피로스터스 <기억> 개인전

'Exhibit' Selected artist, Common Coffee Roasters <Memory> Solo Exhibition

수상 Award

2016 개천미술대상전 입선 Selected work, 2016 Gaecheon Art contest

2014 강남미술대전 특선 3rd price, 2014 Gangnam Art contest

